

(시민단체)

2007년 대선, 정권교체가 아니라 패러다임 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국현 후보를 지지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아 나라를 빼앗긴 그 엄혹한 현실 속에서 백범 김구는 ‘부강한 나라’가 아닌, ‘남을 침략하는 나라’가 아닌, ‘남에게 행복을 주는’ 아름다운 나라를 꿈꿨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우리의 삶과 영혼을 침략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노동착취와 환경파괴 그리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이 약탈적인 경제체제의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정신이고, 2007년 대선은 그 시대정신을 구현할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년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시민사회에서 그리고 국제사회와 정부에서 ‘남에게 행복을 주는’ 실천을 해온 문국현 대통령 예비후보는 바로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상생의 리더십의 소유자로서 우리나라를 아름다운 나라로 이끌 지도자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한나라당으로의 정권교체는 신자유주의의 포로였던 권력을 신자유주의의 전도사들에게 넘겨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국현이 제시하는 ‘사람중심 진짜경제’ 패러다임은 대안 없는 진보 앞에 자본과 노동의 생산적 결합을 보여주고, 부패하고 무기력한 보수 앞에 정직과 혁신의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이하는 2008년, 한반도는 20세기 냉전의 유산을 청산하는 새로운 격변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노동과 자본의 대립, 좌와 우를 뛰어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한민국을 아름다운 나라로 이끌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국현을 지지합니다.

**문국현 예비후보와 함께
청년들이 앞장서서 국민을 감동시키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저희 청년들은 역사적 격변기마다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선봉장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60년 4.19혁명, 80년 5월 광주민중항쟁, 87년 6월민주항쟁, 88년 조국통일운동 및 97년 정권교체를 통한 ‘국민의 정부’ 수립에 이르기까지 그 최전두에는 항상 저희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시대와 국민의 요청이 있을 때 결연하게 행동에 나섰던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17대 대통령 선거의 시대정신이 ‘경제 패러다임의 교체를 통해 대한민국을 재창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땅 파고 물길 돌려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의 건설 중심, 재벌 중심, 거품 성장을 주장하는 이명박 후보의 경제 패러다임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번 대선은 희망이 없습니다.

저희 청년들은 문국현 후보가 유한킴벌리 사장과 킴벌리클라크 북아시아 CEO로 재직 시 보여줬던 혁신성공사례의 경험과 그의 철학으로부터 우리나라 21세기 지식창조경영, 사람중심-중소기업 중심의 진짜 경제와 국제협력과 고부가가치 산업을 통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만이 이번 대통령 선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국현 예비후보를 지지합니다.

IMF라는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주범이면서도 이에 대한 반성은 없이 ‘잃어버린 10년’,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 운운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한나라당,

국가의 미래비전이나 가치에 대한 제시는 없이 동원선거 의혹으로 인해 국민의 외면 속에 대통령 후보 경선을 치르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애정은 있으나 현실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실질적인 수권세력으로 부상하지 못한 민주노동당 등 기존의 정당들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을 감동시키는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저희 청년들과 같은 각계각층의 새로운 세력이 문국현 예비후보를 중심으로 정치의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문국현 예비후보와 함께 저희 청년들은 국민여러분께 5가지 약속을 하고자 합니다.

1. 청년들이 앞장서서 반부패국민운동을 실천하겠습니다.

국가지도층의 부정부패는 경제성장의 가장 큰 적이며 일자리 창출의 가장 큰 적이기에 국가지도층의 부정부패를 일소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경제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국가지도층의 부정부패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을 통해 진정한 법치국가의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2. 노동과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한 노동과 교육만큼은 전 국민에게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교육 강화 및 직장 내 평생학습을 통해 전 국민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5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동등한 노동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3. 노동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자에게 직장 내 평생학습을 통해 직업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반 노동자적 범죄행위를 한 기업주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의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의 다른 약자들에 대해서도 개인의 문제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5. 북미 정상회담 및 북미수교를 통해 2008년을 한반도 평화체제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국민여러분의 현명함을 믿습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늦게 출마해서 안 된다.’ ‘현재 5% 지지도도 안 되는 후보가 어떻게 50% 지지도의

후보를 이기겠느냐?’는 비판과 우려가 있지만, 지금의 지지율은 저 멀리 보이기 시작한 거함(巨艦)의 뱃머리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저희 청년들과 같은 각계각층의 새로운 세력이 합류한 거대한 ‘문국현 함대’가 곧 그 위용을 드러낼 것입니다. ‘문국현이 하면 정치도 이렇게 달라진다.’는 모습을 저희 청년들이 앞장서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12월 19일은 문국현 후보와 함께 전 국민이 깨끗하고 따뜻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범을 알리는 국민의 축제일이 될 것입니다.

2007년 10월 7일

문국현을 지지하는 청년모임